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8호 【루계 제24701호】 주체103(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10개 주요대상 완공, 300만t능력확장공사 활발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적으로 올해의 주요점령목표로 선정된 10개의 대상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리하여 각지 탄광들에서 운반능력이 높아지고 전망이 좋은 새 갱들과 채탄장들이 련이어 조업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성에서는 서부지구와 북부지구 탄광들의 주요개소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이 대상들에서만도 300만t의 석탄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며 운반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통이 큰 목표를 제기하였다.

성참모부에서는 각 탄광련합기업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단계별점령목표를 정해주고 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그 수행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남탄광에 3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갱도굴진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이 대상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전투력있는 굴진력량을 배치하고 탄광일군들과의 협동작전을 벌려 굴진공사와 기본구조물공사를 제기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앞으로 설비들이 들어서는 차례로 조립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면 탄광에는 또 하나의 벨트콘베아수송선이 가동하여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게 된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선별버럭처리를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배수계통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석탄증산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탄광에 선별버럭처리를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여기에 리용되던 많은 전차와 탄차를 굴진막장에 넣어주어 굴진성과가 확대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과 금야청년탄광에서도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큰 규모의 공사들이 벌어져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봉천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하천배수로공사, 륜곽배수로공사, 배수갱복구공사, 갱들의 주요침수개소들에 대한 방수벽공사를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고건원탄광에서 수직갱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갱보수에 필요한 주요설비를 20일 남짓한 기간에 자체로 제작함으로써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 더 많은 새 갱, 새 구역을 조업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에서 수십만t능력의 채탄장이 조업하였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리탄광 6갱에서 새 구역이 조업됨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수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불타는 한마음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2갱에서 새로운 채탄구역을 마련하고 60만t의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는 풀새골구역과 독골구역의 덩지큰 탄맥을 하나로 련결하기 위한 굴진공사와 석탄생산이 동시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덕성탄광에서는 새 갱조업을 위한 굴진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앞으로 기본굴진, 준비굴진구간을 돌파하면 3갱의 주력을 여기에 돌려 본격적인 석탄생산에 진입할수 있게 된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도 수십만t의 석탄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수백m구간에 대한 굴진작업이 70%계선에 들어섰다.

북부지구 탄광들에서 석탄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수동탄광 덕사갱 3편도,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북청년탄광 덕촌갱 -140편도,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학포탄광 전차갱 340편도,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석성탄광의 갱들에서는 기름진 탄발구역을 타고앉기 위한 큰 규모의 굴진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전천탄광의 주요개소들에서도 더 많은 석탄을 짱짱 생산하기 위한 굴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밖에도 성적인 올해 주요점령목표로 선정된 순천지구, 개천지구 탄광들과 북부지구 탄광들에서 새 갱, 새 구역조업굴진전투와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굴진공들은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위훈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리며 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영원히 우리 당따라

◇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10월은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으로 가슴끓이게 하는 달이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를 우러를 때마다 천만군민이 크나큰 격정속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당기여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
당기여
…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도 많다. 그러나 우리 당처럼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비바람, 눈보라도 다 막아주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삶의 요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겨진 위대한 당은 없다. 그러니 우리 인민이 어찌 이 고마운 당을 격조높이 노래하지 않을수 있으랴.

◇ 영원히 우리 당따라, 이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이 당을 따라 걸어온 근 70년의 력사는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을 헤치며 백승을 떨쳐온 나날이였다.

이 로정에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도 있었고 페허우에서의 전후복구건설과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워야 하는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도 있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또 얼마나 간고한 나날이였던가. 우리 인민이 이 모든 시련의 고비들을 굴함없이 헤쳐올수 있은것은 바로 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의 혁명사상은 절대적인 진리였고 백절불굴의 정신적자양분이였으며 당의 령도는 천만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세기적변혁을 안아올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기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당의 품을 먼저 찾고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실생활속에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지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신뢰심을 허물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과 번영의 기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당의 혁명전사들이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난 우리에게는 당을 따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
천리길 끝난 곳에 만리길 또 있어라
가고가다 쓰러져도 영예로운 길이여
내 못다 가며는 대를 이어서
영원히 가리라 우리 당따라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어머니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세상끝까지 주체의 한길로 가고갈것이다.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보수정비에 력량을 집중

함경남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떨쳐나선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발전설비들과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설비와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풀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발전설비들과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다그쳐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진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과 혁명적열정을 안고 도안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발전설비들과 수력구조물들을 집중적으로 보수정비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세웠다.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주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설비들과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송배전부의 책임일군들은 장진강발전소에 나가 협의회를 진행하고 발전설비와 취수구, 언제 등 보수정비해야 할 대상들을 하나하나 선정한 다음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보수정비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보장,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푸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설비와 구조물보수정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곳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광군, 장진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장진강발전소의 취수구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많은 량의 전력을 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호발전소와 4호발전소 도중취수구들에 대한 물문보수도 다그쳐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모조리 잡아 전력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언제기초보강공사, 조정지흙파내기 등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발전기대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국내산 재료를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부전강발전소에서도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호기대보수 그리고 모든 발전기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함께 물길다리보수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수십종에 수백개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가공하여 보장하면서 두대의 발전기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마치였으며 모든 발전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도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어렵고 힘든 물길다리보수도 훌륭히 끝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부전강발전소에 나가 설비와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현지에서 발전설비대보수와 물길다리보수공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었다. 뿐만아니라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보수정비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와닥닥 끝낼수 있게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발전설비들과 언제, 취수구 등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 도급기관들과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발전소의 일이자 자기들의 일이라고 하면서 도안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발전설비들과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고있다.

도와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의 일군들은 굴착기를 비롯한 필요한 기계화수단들을 보내주고 설비, 자재, 로동보호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 대규모발전소들에서 설비와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다그쳐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년간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강계고려약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강계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효능이 높은 고려약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미 지난 9월 30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려약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고려약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고려약을 많이 생산하여 자강도로동계급과 강계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년초부터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공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의 원료인 약초를 더 많이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질좋은 거름을 많이 마련하여 약초재배기지에 보내주었으며 약초재배작업반에서는 대황, 목향을 비롯한 약초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갔다.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약초채취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수송조직을 잘하여 도의 시, 군들에서 수십t의 약초를 제때에 실어들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에 없거나 적은 약초를 다른 도에서 구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약초가공작업반의 가공공정기술개건도 훌륭히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약의 질을 지난해보다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알약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알약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며 령신환, 독뿌리풀건위알약을 비롯한 20여가지의 알약생산을 매달 105%로 넘쳐 수행하였다.

물약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진공농축에 의한 엑스생산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삼지구엽초, 찔광이엑스생산을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이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엑스들은 효능이 높고 질이 좋아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올해에도 계획외에 오미자단물약을 비롯한 20여가지의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생산하여 시안의 약국들에 보내주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배인 박성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집단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엑스생산공정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엑스생산을 지금보다 5배이상 높이고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질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에 박차를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

강원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준비를 잘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올해 통나무생산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일군들이 앞장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이 아래단위 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가 산지합숙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사업에 힘을 넣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에서는 판교림산사업소와 세포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앞서나가고있다.

판교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이달에 벌써 많은 구간의 도로닦기를 진행함으로써 겨울철기간에도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게 하고있다. 세포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터건설과 통쏘이길, 소발구길과 자동차길보수를 비롯한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쳐 관리국적으로 앞서나가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안변림산사업소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한편 부림소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천내갱목생산사업소와 회양림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산지합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준비사업에 앞서 산지합숙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관리국의 모든 사업소들에서도 산지에서 일하는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합숙을 잘 꾸려놓는 한편 후방물자들도 미리부터 착실히 준비해놓고있다.

지금 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짧은 기일안에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끝내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위대한 당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리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아서 (2)

가벼운 마음으로는 걸을수 없었다. 오늘은 넓고 시원스레 도로가 뻗고 리정표와 안내판들이 세워져있지만 해방전 그 세월엔 일제의 총칼이 숲을 이룬 땅이였고 사나운 짐승들이 욱실거리는 부전령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가 9월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진출의 첫 목적지로 신흥지구를 선택한것은 바로 이 지구가 함흥, 흥남 등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가장 많이 집결되여있는 큰 공업도시들을 끼고있기 때문이였다.》

조국땅이 위험한 적구로 되여있던 그 시기에 국내종심깊이 들어간다는것은 사실 조련한 일이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물론 《대통령감》까지 한사코 만류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진출결심을 바꾸지 않으시였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신흥지구에는 물론 양덕일대에까지 진출하시여 일제의 명줄을 끊어버릴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였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준엄한 사선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는 답사길을 이어갔다.

《전민은 김일성대장만을 따르라》

뒤덕봉밀영을 떠난 우리는 부전령의 릉선을 타고 북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수림속으로 뻗은 길을 따라 20리가량 걸으니 길가에 서있는 구호나무들이 보이였다.

바른골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대의 높이는 1 100m정도였다. 우리는 강사 리은별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적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신흥지구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이곳에 백역산밀영과 뒤덕봉밀영의 중간련락장소를 꾸려놓았는데 백역산밀영의 전방초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일대에서 대원실자리들과 10여점의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였다.

유리함속에 보존된 구호나무의 글발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전민은 김일성대장만을 따르라》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넋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리고있다.

국내깊이 진출하시여 대중을 반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신 김정숙동지를 배후작전 련합대장으로 우러르고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우에 솟은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송한 투사들의 감격과 환희를 뜨겁게 전하는 구호문헌들앞에서 우리는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부전령도로주변의 양지바른 곳에 솟아있는 봉분이 눈에 안겨왔다.

묘비의 앞면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무명전사묘》, 뒤면에는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성전에서 희생된 무명전사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활짝 피여난 들꽃을 꺾어 투사의 령전에 진정한 우리는 렬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강사는 1990년대초에 이 고장 토배기로인에 의해 발굴된 묘라고 하면서 해설을 계속하였다.

당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깨에 난 관통상자리로 보나 단발머리를 한것으로 보나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이 분명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귀중한 생을 혁명을 위해 바친 녀전사, 그처럼 바라던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원쑤의 흉탄에 피흘리며 쓰러진 무명전사의 넋을 부르는가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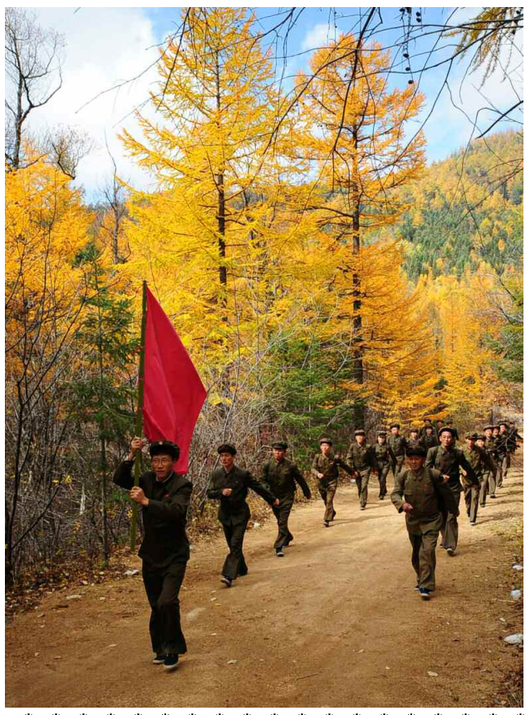
서사시 《백두산》의 구절들이 더듬어졌다.

…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헤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였노?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은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가을비 내리는 백역산마루에 올라

백역산밀영은 바른골에서 부전령산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20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함흥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함경남도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몇해전에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로 자원진출한 강사 김복신동무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백역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두차례 나오시여 사업하신 곳이며 장군님께서 13년전 5월에 몸소 찾아주신 뜻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이곳에 나오신것은 주체26(1937)년 9월이였다.

력사적인 9월호소문을 발표하신 후 전민항쟁의 돌파구를 여시기 위하여 신흥탄광지구로 가시던 길에 이 밀영에 들리시였던것이다.

그날 신흥지구의 지형을 료해하시며 여기는 근거지로서 명당자리라고, 여기에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투쟁근거지를 꾸려 일제의 사등뼈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백두산청년장군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나무블로크를 깔아놓은 좁은 길이 골짜기로 이어져있었다. 그 길옆에 대원실자리들이 있었고 이 일대에서 발굴된 혁명유물들도 보존되여있었다. 총창, 도끼, 주전자, 벼루, 삽, 식칼, 통졸임통을 비롯한 유물들을 주의깊게 바라보며 평양인쇄공업대학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혈전의 길을 헤쳐간 항일투사들의 넋을 되새기였다.

골짜기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니 사령부귀틀집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7(1938)년 8월에 나오시여 사업하신 집이였다.

벽에 걸려있는 신흥일대의 지형을 보여주는 당시의 지도며 력사의 그날 어둠을 밝혀주었던 기름등잔을 바라보느라니 부전령일대에 전민항쟁의 튼튼한 보루를 쌓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안겨와 가슴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천만리를 걸어온 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선군조선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백역산마루에서 터친 평양인쇄공업대학 인쇄공학부 3학년 학생 백승철동무의 심정이였다.

오늘도 메아리치는 전민항쟁의 총성

두무봉밀영은 백역산에서 동북방향으로 30여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전령마루에 뻗은 길을 따라 우리는 답사길을 이어갔다. 키높은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찬 밀림속으로 노루가 뛰여가는것이 보였다. 이 길에 곰이 나타나는 때도 있다고 한다.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힌다고 동행한 일군이 말하였다.

두무봉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2(1943)년 2월에 나오시여 조국해방3대로선을 천명하신 곳이라고 강사 김복신동무는 말하였다.

2월이다보니 눈이 허리를 치고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너무도 간고하여 국내로 나오는 1 000여리 고난의 행군이였다고 하던 항일투사들의 회억이 생각났다. 사나운 비바람, 눈보라를 헤치며 우리의 선렬들이 걸어간 길을 천리로 헤아리랴, 만리로 헤아리랴.

경사급한 골짜기를 따라 얼마쯤 내려가니 나지막한 언덕우에 사령부귀틀집이 있었다. 나무블로크를 깔아놓은 마당에서 노루발쪽문손잡이가 달린 출입문을 여니 방안에 놓여있는 화로와 벼루, 라침판이 보였다. 잊지 못할 그 나날 화로불에 언몸을 녹이시며 회의준비도 하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임무를 주어 각 지역으로 떠나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왔다.

그곳에서 얼마쯤 내려가니 평퍼짐한 언덕이 나졌다. 두무봉회의가 열리였던 장소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소부대, 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외정세를 분석하신 다음 이미 훈련기지에서 제시하시였던 조국해방3대로선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이 일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 《조국해방3대로선 만세 1. 항일군 총공격 2. 전민봉기 3. 배후련합작전》은 회의정신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깊은 골짜기사이에 놓여있는 좁은 나무다리를 지나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흥인민무장대의 훈련을 지도하신 곳이 있었다.

주체31(1942)년말에 조직된 신흥인민무장대는 150명정도였다. 무장장비라야 보총들과 날창, 쇠스랑, 도끼와 같은 도창무기들을 차고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훈련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에게 이번에 여기 두무봉밀영을 회의장소로 정한것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주체적력량이 자라고있는것을 직접 보여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시였다.

훈련장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사격장이 있었다. 혁명사적발굴과정에 5개의 사격좌지를 찾아냈다고 한다. 사격좌지에서 앞을 바라보니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절벽이 있는데 사격목표로 리용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벽밑에서 발굴된 총알자리가 난 병이 전시되여있었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인민무장대의 실탄사격을 보아주시면서 이 무장대의 힘만으로도 신흥지구는 얼마든지 해방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는 전민항쟁을 위한 튼튼한 요새로 꾸려졌다.

두무봉에 울린 전민항쟁의 총성, 그것은 선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생명이며 최후승리의 보검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며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옥련산이여, 불멸의 업적 길이 전하라

장진군에 있는 고대산밀영을 돌아본 우리의 답사길은 옥련산으로 이어졌다. 부전읍에서 30여리 떨어진 곳에 부전혁명전적지가 있었다.

강사 박영희동무는 우리를 먼저 돌강으로 안내하였다.

집채같은 바위들이 강물처럼 흘러내린것인가. 흐르던 강물이 돌로 굳어진것인가. 듣던바 그대로 신기한 돌강이였다.

13년전의 그날 돌강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희한하다고, 이렇게 돌밑으로 물흐르는 소리만 들리고 물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 또한 신기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옥련산은 혁명전적지로서의 의의도 크고 경치도 좋은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돌강주변의 숲속에 옥련산회의장소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7(1938)년 8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부전령비밀근거지를 잘 꾸리며 로동자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대장뜻 일치 항일대전 국내확대》를 비롯하여 회의장주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은 회의참가자들의 격동된 심정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사령부귀틀집으로 향하였다. 동기와로 지붕을 얹은 귀틀집의 노전이 깔린 방안에는 책상이 놓여있었다. 주체26(1937)년 9월과 주체27(1938)년 8월 이곳에서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그대로 안겨오는 귀틀집이였다.

우리는 옥련산정점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단풍이 무르녹는 옥련산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같았다.

우리는 사연깊은 돌밑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 벽면은 나무귀틀로 쌓고 나머지 두 벽면과 천정은 자연바위그대로인 돌밑집의 높이는 1.6m정도로서 방안에서는 허리를 변변히 펼수조차 없다. 여름이면 석수가 흘러내리고 랭기가 풍기는 방안은 5㎡도 되나마나 하였다.

이제라도 불현듯 김정숙동지께서 노루발쪽문손잡이를 잡으시고 나오실것만 같은 이 집앞에 서있느라니 백두의 녀장군이신 그이같으신분이 인류사에 또 있으랴 하는 생각에 눈굽이 뜨거워졌다.

13년전의 그날 이 집앞에서 덧옷을 천천히 벗어드신 위대한 장군님,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며 집앞에 다가서시여 창문쪽에서도 보시고 출입문을 열고 또 보시였다. 멀리에서 보시다가는 한걸음 다가서시여 가까이에서 보시고 그러시다가 또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석수떨어지는 방안을 오래도록 살펴보시였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서계시던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 돌밑집에서 혁명활동을 하신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서 고패친 하많은 생각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는 옥련대바위부감대에서 옥련산정점을 바라보았다. 봉화가 타오르다가 굳어진듯 한 바위, 오아시스를 찾는 사막의 락타가 숨을 내뿜다가 돌로 변한것 같은 바위, 산새가 날아가다가 깃을 접은듯싶은 바위, 숲속의 큰 곰이 웅크리고 앉은듯싶은 바위…

이런 절경을 되찾고 짓밟힌 인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두산위인들께서 총검의 숲을 헤치시였고 천고의 밀림속에서, 석수흐르는 바위밑에서 풍찬로숙하시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옥련산밀영주변에서 류경건설관리국 답사자들의 감상발표모임이 진행되고있었다. 책으로만 학습할 때 느끼지 못했던 크나큰 감동을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해 받아안았다고, 조국해방을 위해 백두산위인들께서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오셨는가를 뜨겁게 느끼였다고 말하는 자강도려단 오미란, 함경남도려단 최명심동무들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우리 혁명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된것이며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 *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혁명의 생명선으로 순결하게 고수되고있는 백두의 혁명전통, 이 줄기찬 피줄기야말로 강성국가건설에 활력을 부어주는 삶과 투쟁의 원줄기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이 귀중한 교범이다.

피어린 항일혈전사를 책에서 배운 세대들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주인공, 주력군을 이룬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더욱 부각되는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만년담보인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자!

위대한 당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맹세를 비껴담아서인가 답사행군대오의 붉은기는 더욱 세차게 휘날리였다.

글 본사기자 김승표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끝)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당일군의 중요한 품성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주체54(1965)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여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진속을 안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내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당일군들은 반드시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치 사람의 속은 볼줄 알아야 하는것이 바로 당일군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커다란 흥분이 가득 어려있었다.

그러한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것은 당일군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라고,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라는 이 고귀한 칭호에는 사람들을 어머니심정으로 대하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답게 인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지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말씀은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 때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며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새겨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단위의 당세포비서를 만나주실 때의 일이다.

그때 당세포비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당원들과의 사업을 바로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맡고있는 당세포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당세포비서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따뜻이 손잡아 자리에 앉혀주시며 당원들의 결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것은 나쁜것이 아니며 세포비서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비판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가들은 비판을 싫어하는 일이 없었을뿐아니라 오히려 혁명동지들이 자기를 비판해주지 않으면 왜 나를 비판하지 않는가, 나를 멀리하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며 불안해하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어떤 세포비서는 당원들을 세워놓고 눈물이 나도록 비판을 해도 당원들이 탓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며 따른다고 이야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지난 시기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은 세포비서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당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줄것을 바라고있다고 하시면서 속담에 매끝에 정든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동지적비판은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하고 단합시키는 법이라고, 세포비서는 매를 들어도 정떨어지는 매가 아니라 정드는 매를 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방법에 대하여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그는 우리 당의 기층당조직을 책임진 당세포비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채히성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들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 현지지도표식비가 함흥남새전문농장과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협동농장, 성천강출하사업소, 함흥수리동력대학에 건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표식비가 함흥남새전문농장에 세워졌다.

혁명사적표식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45(1956)년 5월과 주체46(1957)년 5월 이곳 농장에 찾아오시여 토지리용률과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높여 함흥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이곳 남새온실을 돌아보시면서 판리운영과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령도사적을 전하고있다.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협동농장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4(1965)년 2월과 주체67(1978)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4(1965)년 2월에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알곡과 남새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고 축산과 세소어업을 잘하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릴데 대한 문제 등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내용이 새겨져있다.

성천강출하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100(2011)년 12월 사업소에 찾아오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안고 혁명사적표식비를 세웠다.

함흥수리동력대학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12월 대학을 찾으시여 수리동력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첨단돌파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을 담은 현지지도표식비가 건립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한마음으로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건립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혁명사적표식비,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총폭발시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간다

화력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드높은 생산성과로 신념을 검증받자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화력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갱막장들에 비약의 열풍이 몰아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현지에서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처럼 진격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 *

기자: 최근 이곳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에서 화력탄생산실적이 올라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다. 높아가는 화력탄증산실적은 곧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책임비서 정몽필: 물론 일정한 성과가 있다. 또 그로부터 보람을 느끼게 되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족할수 없다. 이번에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투쟁하는 과정에 당위원회일군들의 사고관점과 창조본때가 더욱 새로와졌다고 말할수 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할바를 다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화력탄증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 탄부들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늘 폐부로 느끼면서도 조국의 더 큰 짐을 걸머질 생각을 못하였기때문이다. 맏아들구실을 다하지 못한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어떻게 일하였는가.

지금도 리화영동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을 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어느 한 대상공사가 진행되던 때 세멘트가 부족한것을 알고 세멘트공장에 달려나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웨치는 구호로만 되여서는 안된다고, 세멘트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는것이 바로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길이라고 하던 그의 웨침이 오늘도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르자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비서 오영수: 옳은 말이다. 화력탄증산을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속에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투철한가가 검증되고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얼마나 튼튼히 섰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말이 아니라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여실히 나타나게 된다.

하기에 우리는 화력탄증산을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해당한 작전을 세우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천성청년탄광에서 화력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혁명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준 실례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탄광의 당일군들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는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게 하였다.

비서 한정군: 이번 전투를 지휘하면서 우리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였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전투의 초기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갱막장들에 들어가 현지에서 정치사업을 하면 할바를 다한것처럼 여기는 편향이 없지 않았다. 화력탄생산실적과 결부하여 일군들의 정치사업의 실효를 따져보는 과정에 우리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다. 하나의 정치사업을 해도 전투정황과 탄부들의 구체적인 심리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이 실효가 훨씬 크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래서 모범적인 일군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전투장마다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힘있게 들이댔다.

책임비서 정몽필: 지금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각오는 대단하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당사업을 대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당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혁신과 위훈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2.8직동청년탄광 9갱 굴진3소대원들을 놓고보아도 사랑과 정, 믿음이야말로 무서운 힘을 낳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뜨거운 사랑과 정, 믿음으로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신력발동의 불씨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당중앙결사옹위의 정신,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을 당과 수령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드높은 화력탄증산성과로 검증받겠다.

기자: 화력탄증산투쟁의 불길속에서 일군들과 탄부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소유자,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우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려는 결심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한다.

충실성의 전통을 꽃꽃이 이어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중에서 2.8직동청년탄광은 화력탄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다.

9월에 이어 10월에 들어와서도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화력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가 탄부들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온 결과라고도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맡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좋은 점은 혁명의 년대마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고귀한 충정의 전통이 오늘의 벅찬 투쟁속에서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이어지도록 하고있는것이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화력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하였을 때 초급당비서 리동철, 부비서들인 강정모, 송창학동무들은 해당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탄광연혁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탄부들의 값높은 위훈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새겨보았다.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직동의 탄부들은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참으로 충직한 로동계급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의 참뜻이 다시금 가슴치며 안겨들고 그럴수록 화력탄증산을 위한 대정치선동을 본때있게 벌려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충정의 전통을 이어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게 하는데 모든 정치사업을 지향시키자.)

일군들의 사색은 한결으로 흘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 누구나 갱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화력탄증산을 위한 오늘의 투쟁이 곧 당중앙결사옹위를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쉴참의 해설담화, 직관선동, 방송선전차에 의한 선전 등 모든 당정치사업의 내용이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일관되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종목들에 품을 들인 사실을 놓고보자.

초급당일군들은 대장 황성혁, 당세포비서 정찬식동무들을 비롯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속에 들어가 어느 한 작품에 시대의 영웅 김유봉동무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반영하도록 작품지도에 품을 넣었다.

평양의 불빛을 지켜가는 직동의 탄부라는 자각을 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석탄증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김유봉동무,

갱막장에 뜻밖에 짐이 실려오는 순간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맞받아나가며 김유봉영웅을 생각하는 한 채탄중대장의 형상을 통하여 탄부들에게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이 오늘의 실천속에서 어떻게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는가를 감동깊이 보여주도록 하였다.

선동극 《어디에 걸렸는가》에서는 석탄생산실적이 높은 단위와 그렇지 못한 단위의 실태를 서로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결코 조건이 문제로 될수 없다는것과 당중앙결사옹위신념이 투철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도록 하였다.

품을 들여 준비한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의 실효는 대단했다. 막장들이 끓었다.

뒤떨어진 단위들은 물론 실적이 높은 단위들의 일군들도 자신들의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산악같이 분발해나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주요계기점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탄광을 찾아주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당 및 근로단체조직별로 연혁소개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도록 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하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천리마시대로부터 격동의 1970년대, 1980년대, 고난의 시기 탄광로동계급이 수놓아온 영웅적위훈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새겨보며 그 충정의 전통을 이어 오늘의 석탄증산투쟁에서 영예의 승리자가 될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9갱 굴진3소대의 전투원들은 물론 탄광안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이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으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결과 이곳 탄광의 갱막장들마다에서는 석탄증산의 불길이 날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설비의 정상가동은 우리의 량심

천성청년탄광 벨트갱 부문당위원회에서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천성청년탄광의 속보판에는 벨트갱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올라있다.

그만큼 탄광의 화력탄증산투쟁에서 이 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커다란 혁신을 창조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비결은 이곳 부문당위원회가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당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갱장 허용선, 부문당비서 박봉식, 기사장 정명호동무들은 3위1체가 되여 종업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징은 종업원들이 맡은 기대의 정상가동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들 호상간, 단위들 호상간에 그 어느때보다도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것이다.

언제인가 2중대구역에서 벨트가 끊어질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다른 때같으면 몇시간 잘 걸려야 퇴치될 일이였다. 하지만 그 과제는 불과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훌륭히 수행되였다. 당사자들인 2중대 전투원들이 분발해나선것은 물론 린접에 있는 1중대와 3중대 전투원들도 한결같이 떨쳐나선 결과였다.

부문당위원회는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네일내일이 따로 없이 합쳐지는 종업원들의 그 마음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면서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그렇게 되니 종업원들 호상간, 단위들 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면서도 갱안의 어디에서나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차넘치고 단합된 집단의 위력이 더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부문당위원회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속에서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이끌어나갔다.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던 지난 9월말의 일이였다.

어느 한 기대의 벨트를 통채로 새로 교체해야 하는 긴급과제가 나섰다.

작업시간을 타산해보면 웅근한교대나 걸릴수 있었다. 그 기준을 따른다면 그만큼 화력탄운반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밖에 나올것이 없었다.

온 탄광이 그 일로 하여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벨트갱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은 종전과는 대비할수 없는 담대한 목표를 내걸고 대중을 힘있게 발동해나갔다.

화력탄증산을 위한 오늘의 실천투쟁속에서 당중앙을 받드는 우리들의 순결한 량심이 그대로 표현되게 된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 벨트교체작업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자.

이렇게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준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 섰다. 통계원, 창고원에 이르기까지 갱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영차!—》, 《영차!—》 함성을 치면서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웅근 한교대의 작업시간에 하던 일을 불과 1시간 30분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설비의 정상가동에 당중앙을 받드는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이 비낀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밑에 갱의 종업원들속에서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설비점검과 보수, 관리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무수히 꽃펴나고있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벌려가는 이곳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날로 더 큰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화선식선동을 기백있게 벌리면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게 하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선동활동을 잘해나가는 선동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한편 그들의 모범을 제때에 일반화해나가고있다.

선동원들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탄광들에 설비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서는 날로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마지막모습에 비낀 당부

령대탄광 6갱 채탄5중대 당세포비서였던 로현범동무

떠나간 당세포비서를 찾으며 가슴을 치는 두 탄부가 있었다. 6갱 채탄5중대 채탄공들인 홍순철, 심경철동무들이였다.

가정사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맡은 일에 열성을 내지 못한 자기들때문에 마음을 쓰면서 많은 걸음을 걷던 당세포비서의 모습이 눈물속에 어려왔다.

삶의 자욱을 옳바로 찍으며 한몸이 육탄이 되여 화력탄증산투쟁을 벌려나갈 결의가 그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세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아침, 로현범동무가 집을 나서던 때였다.

늘 일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그의 안해는 짬을 내여 구들수리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는 손질한지 오래되여 불이 잘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로현범동무의 마음은 현장에만 가있었다. 그는 귀여운 딸을 품에 안고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지금 온 탄광이 화력탄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소. 세포당원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펴야겠소. 그래야 딸에게도 떳떳할수 있소.》

그렇게 막장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리며 교대가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게 하고도 그는 막장을 뜨지 않았다. 세교대가 바뀌도록 석탄생산에서 제일 걸리고있던 문제인 착탄점유지작업을 말없이 해나갔다. 오랜 기능공인 김명일동무가 그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휴가기간이 아직 며칠 남아있겠는데…》

당세포비서의 말에 김명일동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이런 때 선봉에 서라고 당원들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는 그의 손을 당세포비서는 뜨겁게 잡아주었다.

그렇게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던 로현범동무는 우리곁을 떠나갔다.

갱장 리인철, 부문당비서 김승건동무들을 비롯하여 그가 희생된 이후 그의 집을 찾았던 일군들과 탄부들은 미처 손질하지 못해 불이 잘 안드는 로현범동무의 집구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어려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실천적모범으로 당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간 당세포비서 로현범동무,

그의 마지막모습은 화력탄증산투쟁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는 힘있는 당부로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현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은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준다.
— 령대탄광에서 —

동해지구에서 논벼 정보당 1t이상 증수한 비결

안변군 사평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은 동해지구 농촌들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농장들중의 하나이다. 이런 지대적특성으로 하여 지난 기간 알곡생산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에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논벼를 정보당 1t이상 증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랭해를 극복한 논물관리방법

동해지구에서 랭해를 극복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알곡증산의 기본열쇠가 있다. 이 농장의 올해 논벼농사경험을 보면 동해지구의 랭해를 능히 극복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고있다.

지난봄 평양에서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 참가하였던 관리위원장 김영식동무는 랭해를 극복할수 있는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내놓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였던 최선학동무를 알게 되였다. 그를 만나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관리위원장은 무릎을 쳤다. 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랭해를 막을수 있는 좋은 논물관리방법이였던것이다. 그 우월성을 증명해주고있는 시험자료들은 종전보다 정보당 수확고를 더 올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모판과 논판에서 종전보다 적은 물을 가지고 모기르기와 논벼재배를 하는 이 방법의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관리위원장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이 방법도입을 결심하자고 보니 한가지 걸리는것이 있었다. 왜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 농장들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처음 해보기때문에 신심이 부족한것은 물론 자칫하면 한해농사를 그르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관리위원장은 밤잠을 잊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이 떠올랐다.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결심하였다.

—대담하게 받아들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바로 여기에 동해지구 논벼농사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그후 이 문제가 농장일군협의회에 상정되였고 얼마후 온 농장에 알려졌다.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였다. 랭해가 오면 논에 물을 채우는것이 전통적인 논물관리방법이다, 파악없는 일에는 처음부터 발을 잠그지 않는것이 상책이다. …

무슨 일이든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 성과가 크기마련이다. 관리위원장은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에게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기사장 김명호, 연구사 최선학동무와 함께 계기를 자주 마련하여 농장원대중이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바로 인식하도록 해설해주면서 과학기술적타당성도 설명해주었다. 특히 논의 땅속온도는 물을 댔을 때보다 대지 않았을 때 더 높다, 따라서 논벼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보장해주면서도 땅속의 산소량과 온도를 높여줄수 있게 일정한 기간 물을 대였다 뗐다 하는 공정을 반복해주면 뿌리활성이 강해져 랭해를 극복할수 있다, 결국 정보당 소출을 그전보다 더 올리게 된다고 하면서 그 원리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지지해나선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은근히 걱정하면서 몇개의 포전에만 시험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리위원장의 결심에는 드팀이 없었다.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과학화하는 길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성공하기마련이다.

군당책임일군이 관리위원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었다. 여기서 힘을 얻은 그는 연구사와 함께 이 방법이 은을 내게 하자면 어떤 과학기술적조건을 지어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그들은 김잡이를 제때에 기술적으로 하고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다면 능히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들에서 짠물피해를 받는 포전을 제외한 논에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였다.

모기르기를 논에서 하는 경우에는 밭상태의 모판을 만들고 그 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모가 튼튼해지고 모살이기간이 짧아지게 되였다.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그 준비를 잘 갖추게 하였다. 물을 댈 면적과 논판의 물매, 모내기형식에 맞게 인수로를 배치하였다. 작은 물길을 따라 흘러든 물은 인수로를 리용하여 필요한 때에 논판에 대주도록 하였다.

포전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마른써레질을 한 논에 3~4㎝ 되게 물을 대고 모내기를 시작하기 5~6일전에 살초제를 쳤다. 그리고 모살이비료를 준 후 모를 내였다.

모내기후 논에 물을 대주고 뽑는 기일은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실례로 모래기가 많은 땅인 경우 논판에 실금(이때 습도는 70~80%)이 가면 물을 일정한 기간 대준 후 뽑았는데 이런 공정은 논벼생육 전기간에 진행하였다.

이삭이 나온 후 뿌리를 뽑아보았는데 물댄 포전의 벼는 잔뿌리가 많았고 곧추 뻗었으며 70%가 검은색을 띠였다. 그러나 물대기와 뽑기를 배합한 포전의 벼뿌리는 희고 굵었으며 옆으로 뻗어있었다.

이렇게 영양면적과 산소흡수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니 지난 시기보다 논물을 보름 앞당겨 뽑았지만 가을걷이를 할 때까지 벼잎이 푸른색을 띠였다. 이것은 땅속산소와 온도가 제대로 보장되였기때문이였다.

결국 뿌리활성이 높아져 랭해를 극복하고 천알무게를 늘일수 있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물은 종전보다 50%이상 절약하였으며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병해충의 피해를 막았다.

올해에 농장에서는 왕가물로 부족한 물을 가지고도 안전하게 논벼농사를 지어 지난 시기보다 증수하는 혁신을 창조하게 되였다.

앞선 재배방법과 기술도입은 증산의 담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장의 포전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해비침률과 온도가 낮아져 해마다 논벼생육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이런 조건에서 알곡소출을 더 높일수 있는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일군들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현실에 맞는 앞선 재배방법과 기술도입이였다.

소식재배방법도입이 그 실례중의 하나이다. 종전에 농장에서는 평당 포기수를 많이 정해놓고 논벼를 재배하였다. 이렇게 하니 통풍조건, 해비침조건, 영양면적조건이 나빠져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평당 포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만일 평당 포기수를 타산없이 줄이면 품은 적게 들지만 대신 수확고가 떨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따라서 작업반들의 포전별특성이 다른 조건에 맞게 포기수를 정하여야 하였다.

창조적으로 사색하면 묘술을 찾아내기마련이다.

일군들은 기상기후, 토양상태, 논벼품종 등을 고려하여 포기의 빛받이, 통풍, 영양물질보장이 잘되도록 포기수를 정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의 경험을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모래메흙땅, 질메흙땅에서 소출이 제일 높았던 경우를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줄사이거리와 포기사이거리도 최대소출을 예견하여 정하였다.

일군들은 품종선택을 바로 정하는 문제도 중시하였다. 어떤 품종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수확고가 차이났기때문이였다. 종전에는 이삭수형품종의 종자를 기본으로 재배하였다. 그러다보니 이삭수가 많아 빛합성과 통풍조건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이삭무거운형의 종자들을 선택하였다. 결과 이삭당 알수가 많고 천알무게가 높아지게 되였다.

일군들이 또 하나 중시한것은 비료주는 문제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의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이 논벼생육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결과 구체적인 실정을 타산하여 비료를 주는것이 논벼소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일군들은 땅의 특성과 기후조건에 따르는 전반기의 논벼생육상태를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써레치기 전에 밑비료로 정보당 100~150㎏을 주도록 하였다. 모내기이후에는 비료를 생육단계별계획대로 주되 물을 뽑은 후에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논벼의 비료흡수률이 높아졌다.

유기질비료의 리용에 관심을 돌린것도 잘한 일이다. 논벼가 생육후반기에 무더위의 영향을 이겨내며 장마철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일군들이 힘을 넣은 문제의 하나가 날씨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 등을 기술적요구대로 리용하여 부족되는 미량원소들을 보충하도록 한것이였다.

품을 들인것만큼 열매가 큰 법이다.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정보당 1t이상의 알곡을 증수하는 례년에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느 농장에서나 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현실에 받아들일 때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성일

백두산눈보라는 신념의 강자들을 키운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

백두산!

주체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르며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혁명가들로 억세게 자라났던가.

선군조선의 기상과 넋을 숭엄히 안고있는 항일의 전구에서 새 세대 청년용사들이 미덥게 성장하고있다.

오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지금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치기공사와 2호발전소 물길굴확장 및 피복공사, 2호발전소 발전기실기초타입 및 설비조립공사와 3호발전소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1호발전소를 조기조업한데 이어 단숨에의 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

백두청춘들의 투쟁과 생활은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눈보라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와 살로 간직할 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된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으로 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였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을 때였다.

전국각지의 피끓는 청춘들이 천고의 밀림이 설레이는 항일의 옛 전구 백두산지구에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청년들은 자기들의 삶의 좌표를 백두산을 향하여 세우고 당과 수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섰다.

나서자란 고향과 경력, 나이와 성격은 서로 달라도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혁명을 끝까지 하려면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불같은 지향이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은 삽시에 백두청춘들의 슬기와 용맹이 나래치는 청년들의 활무대로 화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라는 명칭이 새겨진 붉은 기발이 고난의 시기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 굽이쳤던 청춘의 열정과 위훈을 그대로 안고 세차게 퍼덕이였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3개의 계단식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돌격대원들은 처음부터 그야말로 악조건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사납게 천막을 두드리는 북방의 차거운 눈비도, 때없이 무너져내리는 산악의 돌사태도 불같은 열정으로 기초를 다지고 물길을 열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였다. 전투장마다에서 혁명가요가 힘차게 울려퍼졌고 낮에 밤을 이어 함마소리, 발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언제 기초를 위한 토량 및 암반굴착공사와 물길굴뚫기에서 날마다 일자리가 푹푹 났다.

평양시려단, 평안북도려단, 함경북도려단, 평안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석수가 쏟아지고 수시로 붕락이 들이닥치는 속에서도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안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굴진실적을 높여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한 전투장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눈물을 뿌리며 담가에 실려있는 한 청년을 바래우고있었다. 그는 평양시려단의 김춘남동무였다. 전투장에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그는 한몸을 내대여 귀중한 설비들을 구원하였다. 설비들은 구원되였지만 그는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동무들, 날 보내지 마오. 난 백두산을 뜰수 없소.》

김춘남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담가채를 잡은 돌격대원들의 손을 뜨겁게 마주잡았다. 그러면서 그는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를 읊었다.

…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온몸의 힘을 깡그리 모아 웨치는듯싶은 그의 목소리는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울리였다. 동지들의 뜨거운 눈물속에, 바래움속에 그는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였다. …

돌격대원들은 강의한 의지를 안고 발전소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내밀었다.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건설장을 격정의 불도가니로 만드는 청년돌격대 지휘관들, 건설장의 곳곳에 나붓기는 붉은기, 질통을 지고 달리고 또 달리는 청년들, 시간마다 창조되는 혁신적성과들을 알리는 현장방송원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

백암땅의 엄혹한 겨울, 백두산의 눈보라는 삶의 좌표를 혁명의 성산에 새긴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였다.

령하 30~4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맵짠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산악같이 일떠선 돌격대원들은 언제의 좌안과 우안에서 수천개의 발파구멍들을 뚫고 대담하고 통이 큰 집중발파를 해제끼였다. 건설장의 모든 곳에서 백절불굴의 투지를 안고 발전소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웨치며 완강히 돌진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모습 그대로였다.

물길굴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에서 굴진속도를 높이고있던 어느날이였다.

한 굴진막장에서 뜻밖의 붕락으로 하여 세명의 돌격대원들이 갇히게 되였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속에 한동안 세개의 안전등불빛이 굴진해나가던 암벽과 갱밖을 가로막은 버럭무지로 엇갈리며 비쳐졌다. 그러던 그 빛들이 착암기로 모아졌다. 백두청춘답게 피끓는 심장으로 천연암반을 밀어내자고 틀어잡았던 착암기였다.

《착암기를 잡자구. 압축공기는 계속 들어오고있소.》

《백두산을 향해 계속 전진합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 선군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합쳐 이름지어주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영예를 끝까지 지킵시다.》

이 말은 비단 그들의 심장에서만 울린것이 아니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그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해나서는 수많은 청년들을 한명한명 엄선하였고 발전소건설을 더 잘 돕자고 호소하는 도,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말도 그 부름으로 시작되였으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현장련합지휘부와 각 려단 지휘관들의 사업총화는 물론 대대와 소대들의 총화모임도 그렇게 시작되군 하였다.

착암은 계속되였다. 발파구멍을 뚫으며 기세차게 돌아가는 착암기의 정대에 모아진 세개의 안전등불빛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얼마후 돌격대원들이 붕락구간을 밀어내고 막장에 들어섰을 때에도 세명의 돌격대원들은 계속 착암을 하고있었다.

그들이 일하던 막장의 암벽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우리의 굴진속도는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리는 백두청춘의 속도!》

그들뿐이 아니라 오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고있다. 그들이 백두산과 더불어 높이 세운 삶의 좌표는 영원한 충정의 표대이다.

몇해전 평양시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1호물길굴피복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갱입구에서 뜻밖에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의 시구절이 울려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던 청년들은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김춘남동무가 세바퀴차에 앉아 열정적으로 시를 읊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달려온 돌격대원들을 얼싸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기어이 또 백두산으로 왔네.》

감동어린 눈길들이 김춘남동무와 세바퀴차를 잡고 선 녀성을 뜨겁게 감쌌다. 돌격대원들은 그 녀성이 백두청춘들의 참된 삶의 길에 자기의 발걸음도 따라세우며 김춘남동무와 가정을 이룬 력포구역의 어느 한 협동농장 농장원 김충심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

백두산에로의 길!

그 길에서 우리 청년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 백두의 노을과도 같은 불타는 열정, 백두의 천지물과도 같은 순결한 정신세계를 심장깊이 체득하고있다.

오늘도 백두산을 우러르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충정의 발걸음은 언제나 곧바로이다.

백두청춘들의 넋—연길폭탄정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가 건설되고있는 백암군 천수지구는 해발고가 높고 대낮에도 산짐승들이 인가에 찾아든다는 천연수림지대이다. 한해에 천번의 눈, 비가 내린다고 하여 천수라 불리운다는 고장, 강재와 세멘트를 백암역까지 넓은철길로 2,000여리나 운반하고 그것을 다시 좁은철길로 수백리, 륙로로 수십리를 운반해야 하는 멀고 험한 고산지대…

그 백암땅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갔다.

타래쳐오르는 눈보라때문에 한치의 앞도 가려보기 힘들고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있던 때 돌격대원들은 《썰매전》, 《말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고 백두산을 바라보며 강철의 힘을 백배로 다져나갔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울려퍼진 기계설비들의 우렁찬 동음은 항일의 투사들이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자력갱생마치소리의 끊임없는 메아리였다.

1호언제건설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해 12월이였다.

언제건설속도를 높이자면 혼합물수송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했다. 지휘부에서는 언제앞에 교각을 세우고 레루를 놓은 다음 소형기관차로 혼합물수송을 보장하기로 결심하였다. 통나무를 잘라서 네귀를 맞추어 둘러 짠 방틀식으로 교각을 건설할데 대한 대담하고 통이 큰 발기는 모든 지휘관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신심과 비상한 열의속에 방틀교각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그해에 들이닥친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와 폭설, 지동치듯 몰아치는 눈보라도 돌격대원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다.

청춘들아, 한몸그대로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밝히는 불빛이 되자!

연길폭탄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는 백두청춘이 되자!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웨치며 언땅을 파헤치고 교각의 기초를 다지면서 낮에 밤을 이어 통나무들을 운반하였다.

《전투는 며칠째 계속되고있다. 눈보라도, 가파로운 령길도, 어깨를 파고드는 통나무의 무게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안타까운것은 내가 통나무를 한량메나를 때 남동무들은 두량, 세량을 하군 한다. 그들을 따라잡을 방도는 없을가?…》

이것은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 한현미동무가 자기의 일기장에 남긴 일기의 한 대목이다. 그가 먼길을 달리며 하루에 나른 통나무는 10여대였다. 지금껏 연약한 어깨우에 그가 메여본것이 있다면 학교시절의 책가방과 졸업후의 출퇴근가방뿐… 그런 그가 눈길우로 통나무를 메고 달리고서도 미처 할 일을 다 못한것처럼 안타까와하고있었다.

돌격대원들모두가 이런 심정을 안고 일하였다. 흙과 돌을 다져넣은 마대의 무게는 보통 30~40㎏, 그 무거운 마대를 메고 청년들은 걷는것도 성차지 않아 뛰고 또 뛰였다. 그들이 하루종일 달린 거리는 왕복 80~90리, 최고 105리!

처녀돌격대원들이 하루에 10여대의 통나무를 끌어내리고도 성차하지 않을 때 기초파기전투장의 처녀들은 서두수의 차디찬 얼음물속에 뛰여든 결사대원들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있었다.

암반이 나서지 않게 되자 결사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기초가 될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소철레루를 안고 강물속에 뛰여들었던것이다. 얼음버캐가 떠있는 강물은 그들의 가슴노리를 세차게 쳤고 구리빛얼굴들은 차츰 거무스레하게 얼어갔다. 차디찬 강물속에서 그들은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무려 2시간동안이나 소철레루를 어깨우에 떠받쳤다.

그때 전투장에서는 이런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

서로서로 어깨로 레루들을 떠받들고 선 대원들의 심장에서도, 그들과 한덩어리가 된 처녀돌격대원들의 입에서도 이 노래가 울리였다.

백암땅에 울려퍼진 《적기가》! 그것은 천만시련이 앞을 막아서도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갈 우리 청년들의 억척같은 신념의 분출이였고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불타는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억세게 벼린 신념의 기둥인양 방틀교각들이 일떠서고 그우로 소형기관차주행로가 펼쳐졌을 때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그 교각들에 이런 구호를 새기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천연수림속에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가 어려있는 그 구호에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지구가 깨여진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억센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었다.

거대한 방틀교각들마다 한글자한글자씩 큼직하게 써붙인 그 글발들을 바라보며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자각하게 되였고 제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백두청춘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항일의 전구에서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150여대의 설비와 2,900여점의 기공구들을 자체로 제작하였고 50여건의 발명과 370여건의 창의고안을 하여 발전소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얼마전에 진행된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그들은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구절구절들을 심장깊이 새기며 투사들의 연길폭탄정신을 따라배우군 한다.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 작탄과 총탄을 만들 때 쓰던 그 한g한g의 화약은 그대로 다 투사들이 뿌린 피였고 살점이였으며 그 모든것의 결정체였다. 줄칼로 쓸고 숫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며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한 자력갱생의 투사들, 기관총도 재생시키고 나무포와 연길폭탄도 만들어 원쑤들을 전률시킨 항일혁명투사들!

항일의 투사들이 지녔던 그 정신, 그 투지는 그대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불굴의 넋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 넋이 노도와 같은 거세찬 힘으로 분출되여 공사에 필요한 수력구조물용 세멘트와 강재도 생산하게 하였고 《선군청년전위》호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였다.

성, 중앙기관대대와 황해북도, 강원도려단과 남포시대대에서는 고산지대의 강흐름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나무다리시공방법들과 교각기초암반굴착방법, 콩크리트다리부재시공방법들을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함경북도려단에서는 이동식공기분배통에 의한 압축공기보장방법을 내놓아 공사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0t이나 되는 혼합물을 싣고 서두수의 물결을 헤가르는 혼합물운반선 《백두청춘》호도, 백암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각종 남새들을 벌방 못지 않게 생산하고있는 수백정보의 부업지들도, 수많은 나무모들을 키워내고있는 묘목장과 수천마리의 집짐승들을 길러내고있는 튼튼한 후방기지들도 바로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백두청춘들의 귀중한 창조물들이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연길폭탄정신을 체현한 신념의 강자, 자력갱생의 강자로 자라나려면 백두산의 눈보라를 맞아보아야 한다고.

뜨거운 동지애의 서사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하루일과는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울려퍼지는 항일유격대나팔소리로 시작된다.

전투장으로 향할 때에는 혁명가요가 우렁차게 울리는 대오앞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전투의 쉴참에는 우등불이 타오르는 속에 유격대춤판이 펼쳐진다.

청춘들의 랑만적인 웃음은 백두대지의 새벽녘에 밝게 어리게 될것이라고, 청춘들의 열정은 백두의 선경마을들에 열이 되여 흐르게 될것이라고 격정을 터치며 서두수의 드센 강줄기를 휘여잡으면서 만년언제를 높이 쌓아가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밀림속의 바위며 진대나무들을 책걸상삼아 수많은 시와 소묘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바로 그 나날에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청사에서 입대청원을 조르던 애숭이청년이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가 되고 돌마대를 지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처녀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녔으며 집단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책감에 모대기던 청년이 인생의 새로운 길에서 어엿한 대대장이 되였다.

백두청춘들의 사랑은 또 얼마나 열렬하고 아름다운것인가.

몇해전 함경남도려단의 김철룡동무가 전옥경동무와 일생을 함께 하기로 한 언약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이런 회답이 왔다.

《백두산기슭에서 며느리를 얻게 된다니 난 두말없이 찬성이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그들은 돌격대제복을 입고 밀림속의 귀틀집에서 동지들의 축복속에 진행하였다.

흙마대도 함께 메고 얼음물속에도 함께 뛰여들었으며 언 밥도 함께 들던 수많은 동지들이 언제우에 위병대마냥 정렬하여 축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앞길에 꽃보라를 뿌려주었다.

백두청춘들의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불보다 뜨거웠고 강추위와 눈보라속에서도 식을줄 몰랐다.

동발나무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식당근무인 두 처녀돌격대원들은 운반식사가 담긴 배낭을 지고 사나운 눈보라속을 헤치며 산길을 톺아올랐다. 식사시간도 잊고 동발나무들을 마련하고있는 동지들을 위해 무작정 길을 떠났던것이였다. 눈우에 깊은 발자욱을 새기며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그만 산중에서 길을 잃게 되였다. 두손을 입가에 모아쥐고 그들은 안타까이 불렀다.

《동무들— 동무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사나운 눈보라에 삼키우고말았다. 눈길은 갈수록 깊어졌고 눈보라는 더욱 세차졌다. 맥이 진한 그들은 배낭을 품어안은채 진대나무에 쓰러지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 겨우 뜬 그들의 눈에 자기들을 빙 둘러싼 낯익은 얼굴들이 안겨왔다. 두 처녀돌격대원들의 몸에 여러벌의 솜옷들이 겹쌓여 덮어졌다. 동지들의 열기는 차디찬 귀를 가리운 털모자에도, 까드라진 손들을 감싼 목도리에도 감돌았다.

《한끼쯤 굶는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험한 길에 나섰소. 강추위에 동상이라도 입으면 어쩔려구…》

잠시후 우등불이 타올랐다. 처녀들이 배낭안에서 겹겹이 싼 주먹밥을 꺼내여 돌격대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주먹밥에서는 아직도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을 받아들고 차마 입에 대지 못하는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고있었다. 그 밥들은 두쪽, 세쪽씩 나뉘여져 신대원들에게로 넘어갔고 그것은 다시 큰 한덩이가 되여 처녀들의 손에 쥐여졌다.

그날 돌격대원들은 우등불가에 둘러앉아 많은것을 생각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유격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던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하여, 우등불가에서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리며 《사향가》를 부르던 투사들에 대하여…

백두청춘들은 언제나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눈보라속에서도 아름다운 동지적사랑을 꽃피웠고 강추위속에서도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동지적뉴대를 두터이 하였다.

어려운 속에서도 정양소와 보양소들을 훌륭히 꾸려 돌격대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지휘관들의 불같은 헌신도, 항일의 군의들처럼 높고낮은 산발을 톺으며 약초들도 캐여 돌격대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가는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도 그런 뜨거운 동지애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내 기어이 보답하리라. 하여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수도 평양으로 떳떳이 돌아가리!》

이것은 평양시려단의 돌격대원이였던 원정철동무가 남긴 수기의 한 대목이다.

뜨거운 동지애의 서사시

몇해전 어느날 가설다리건설장에 뜻밖의 위험이 조성되였다. 사나운 물살에 큰 통나무들이 기울어지는 순간 《비키라!》하고 벼락같이 소리치며 통나무를 맞받아 날아드는 청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원정철동무였다. 그는 무너져내리는 통나무들을 한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의 어머니가 전투장에 찾아왔다. 아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는 그날 밤 아들의 사품들을 앞에 놓고 밤을 지새웠다. 거기에 바로 수기를 적어넣은 수첩도 있었다. 그 다음날 전투임무를 주려고 대렬앞에 나섰던 려단장은 대렬 맨 마지막자리에 서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였다. 그때 원정철동무의 어머니 박명실녀성은 결연히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의 전투임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에 려단장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러나 아들의 전투임무수행을 대신하려고 나선 어머니도,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돌격대지휘관들과 대원들도 어떤 크나큰 사랑이 떠나간 전사를 감싸안고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정철동무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그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돌격대력사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근로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원정철소대》가 태여나도록 해주시였다.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을 받아안던 날 박명실녀성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어버이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무한한 감격과 불타는 충정의 세계가 어려있는 백두청춘들의 그 심장의 웨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솜옷들을 가득 실은 특별비행기가 발전소건설장을 향하여 날을 때에도, 백두청춘들을 영광의 대회장들에 남먼저 불러주실 때에도, 외국방문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건설장을 찾으시여 그동안 상상밖의 많은 일을 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맡겨준것은 우리 청년들을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격려해주실 때에도 백암령을 흔들며 찌렁찌렁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돌격대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청년절을 맞으며 현장에서 방송야회를 가지도록 해주시였으며 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삼가 올린 결의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실태를 료해하시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당조직들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정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줄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한량없는 믿음속에서 수천명의 백두청춘들이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나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심장으로 이렇게 웨친다.

항일의 전구에 새겨지는 뜨거운 동지애의 서사시, 그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불굴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백두청춘들의 아름다운 삶의 노래이라고.

* *

얼마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에 참가하였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화선참호를 차지하고 대원들과 함께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뿐이 아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시대를 들었다놓는 용감성, 무비의 희생성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우리의 수백만 청년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르며 전력, 석탄증산을 위한 전투장들과 들끓는 건설장들에서, 농업전선, 과학전선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과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강력한 전위대이며 혁명의 원쑤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드센 철추이다.

백두산의 눈보라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억세게 키워낼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일떠선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언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자주통일의 길을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명안

《이북의 통일방안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그것은 이북의 통일방안들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운동을 앙양시키며 통일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길을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광주의 한 지식인이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토로하면서 터친 찬탄의 목소리이다.

외세의 군화발밑에 민족분렬의 비극적운명을 강요당하는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기치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치신 로고의 낮과 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속에 마련된 불멸의 조국통일대강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고려대학교의 한 대학생은 조국통일로선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이북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은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가실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절대적인 찬동을 받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주정신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그분들의 애국, 애족, 애민의 한평생이 력력히 어려있으며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태양회의 한 회원은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집무보신다》라는 글에서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낮에 밤을 이어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수많은 통일명안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하루도 편한 잠 이루지 못하시고 통일때문에 머리가 일찍 희여지신 주석님,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엮어진 그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였다.

정녕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너무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더듬어보며 나는 끝없이 젖어드는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영생하시는 주석님의 영상을 우러렀다.》

서울에서 재야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통일좌표와 민중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통일경륜이 집대성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에 바쳐진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심혈, 통일의지와 신념의 응결물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주통일의 궤도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고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백두회의 한 회원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이어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민족의 통일성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조국통일3대헌장, 3대기둥으로 정립되고 두차례의 평양상봉이 이루어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 아닐수 없다.》

일찌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나라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자신께서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통일된 조국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시였다. 깊은 밤에도 잠못 드시고 하루빨리 분렬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통일의 려명을 불러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보내신분,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해 심려하시고 사선을 헤쳐온 통일사절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시며 통일된 조국땅에 펼쳐질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설계하시고 그려보시던 자애로운 어버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 그분들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새겨안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들은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통일방략이 있어 민족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민족번영의 래일을 희망과 락관속에 그려보고있다.

남녘겨레의 가슴가슴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더욱 부풀어오르고있다.

남녘인민들의 이러한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평화수호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인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며 적극 따르고있는데서 뚜렷이 표시되고있다. 그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탁월한 사상리론적풍모와 높은 령도적자질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 겨레는 그분의 활동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보고있다. 그분은 진정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다.》라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선군령도가 있기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이 밝아온다는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자주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도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의장 담화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4돐에 즈음하여 임태광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의장이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야말로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도라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탁월한 령도와 대용단으로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여 북과 남이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게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만 리행되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밝혔다.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담화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4돐에 즈음하여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이 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의 가장 정당한 방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수십년동안이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하여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도이며 통일국가건설의 진로까지 밝힌 휘황한 설계도로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제시된 그날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아왔으며 오늘도 우리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통일대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오신 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유산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실현된 우리 민족의 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 싸워나갈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성은 단합과 통일의 기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미녀운 체육선수들은 특기할 성과로 어머니조국과 인민들에게 장쾌한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인천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하나로 흐르는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의 감정을 소중히 느끼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체육에서도 능히 세계패권을 쥘수 있다는 민족적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준 동시에 북남관계개선의 절박성과 조국통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지금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커다란 긍지에 넘쳐있으며 대대로 이어온 하나의 민족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어느 민족이나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가지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누구보다 강렬하고 민족적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특질이다.

현시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가장 선차적인 요구,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기초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민족성은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세우는 민족적단결의 기초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겨레의 애국적열의와 힘을 하나로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혈연적기초, 단합의 밑천은 다름아닌 민족성과 그에 바탕을 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싸우려는 것이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과 단결력이 강하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끝까지 싸운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민족적특질은 오늘도 겨레의 심장속에 용용히 살아높뛰고있다. 이 남달리 우수한 민족적기질에 기초한다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유구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단결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성을 기초로 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는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해야 온 겨레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일수 있으며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도 높이 발휘될수 있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자주정신의 핵이며 민족성원들의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원천이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높을 때 우리의 민족성원 누구나가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에 스스로 뛰여들수 있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 북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될수 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민족성을 기초로 하여 다시 하나로 합쳐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자주정신을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고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정신과 조국애, 민족애에 기초하여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념원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지금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통하고있는 자주의 리념,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실현의 정신적원동력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어 온 겨레가 우리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할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북남관계개선과 분위기조성

북남관계가 다시금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오늘 우리 겨레는 비방중상과 반목질시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증대시키고 전쟁위험만을 몰아온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고있다.

북남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섰다가도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온당치 못한 처사에 의해 또다시 파국에 처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한다. 지난날의 교훈과 오늘의 현실은 대담하게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용단을 내리고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과감한 실천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살길이며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분위기부터 마련하는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사업은 분위기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현정세로 보나 겨레의 지향과 념원으로 보나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의 대범한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였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화해와 단합,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고 설사 서로 마주앉았다고 하여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소동으로 북남관계에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년간 북남관계는 여러차례 개선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종당에는 다시 파국에로 뒤걸음치군 하였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적대행위로 대화는 결렬되고 불신의 감정만 고조되였다.

이것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북남관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그 분위기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고대하고있다. 겨레의 이러한 지향에 따라서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고 고집하면서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면 그것은 서로의 대립과 반목만 심화시킬뿐이며 절대로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이룰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에 분위기조성노력이 따라서지 못한 결과 지속적인 관계개선에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때가 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정치군사적적대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에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훌륭한 합의들이 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확대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명시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이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간다면 북남관계에서는 획기적발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다.

민족을 중시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온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반공화국삐라살포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할것을 주장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얼마전 인천에서 기념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10.4선언발표 7돐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랑독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더이상 통일을 늦출수 없다는 각오를 안고 8.15해방 70돐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다음해를 제2의 6.15시대를 여는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정부〉호소문》을 통해 10.4선언에는 남과 북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각계의 념원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과업과 방도들이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그 리행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부강조국건설에 기여할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 청년동맹조직들과 학생청년들이 과학탐구활동을 벌리는 나날에 창조한 수많은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300여건의 발명품, 창안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폐막식이 1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학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전문학교부문에서는 해주의학전문학교가 우승하였다.

도별순위에서는 평양시가 특등, 함경남도가 1등을 하였다.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발명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훌륭히 건설된 잔디연구기지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해주, 강계, 원산, 청진잔디연구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되였다.

잔디연구소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솟아난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들이다.

여기에는 잔디의 육종과 재배, 병해충구제와 관련한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시험포전을 비롯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당의 은정속에 잔디연구소들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나라의 지역별기후풍토에 맞는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고 재배기술을 널리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5월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마다 기후조건이 다른데 맞게 도들에 잔디연구소들을 내오도록 하시고 건설과 관련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건설장들에 달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몇달 남짓한 기간에 건설대상들에 대한 기초굴착을 끝내고 기본청사와 보조건물 등의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렸다.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보온식가설막을 설치하고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벽체와 바닥미장을 비롯한 내부공사를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내밀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군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투쟁기풍,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건설전기간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맨 앞장에서 해제끼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안고 각지의 근로자들도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잔디연구소들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현대적인 잔디연구기지들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역별기후풍토에 맞는 잔디육종과 재배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에 대하여 꾸바인민은 높이 평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력사적인 이 시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공동의 적인 미제를 반대하여 한전호에서 싸우는 꾸바인민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이다고 강조하였다.

꾸바는 영원히 조국의 자주권과 통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있을것이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세운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강석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꾸바인민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동지적의리에 기초한 꾸바당과 정부의 립장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꾸바의 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꾸바당과 정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백승을 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주조 무관단

천지윤활유공장과 천리마타일공장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4일 천지윤활유공장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되고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공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꽃펴난 현대적인 공장이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되고 생산물의 질이 대단히 훌륭하다.

왈리드 엘싸예드 모함마드 아흐마드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무관은 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자력갱생의 정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손님들은 또한 천리마타일공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레 주이 롱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관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공장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4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나라의 민음직한 음악예술인재양성기지로서 주체음악교육의 최고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대학의 연혁소개실과 강당들, 음악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일행 귀국

나기브 싸위리쓰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과 일행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명철 체신성 부상과 에젤딘 헤이칼 주조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상주대표가 전송하였다.

체육관을 새로 건설

염주군에서

염주군에 체육관이 새로 일떠섰다.

2층으로 건설된 체육관에는 배구, 롱구, 탁구, 권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실과 훈련장, 문화후생시설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체육관이 건설됨으로써 군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체육관을 자체로 일떠세울 목표밑에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군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설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공정간 련계를 빈틈없이 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온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해제꼈다.

이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궁륭식지붕공사와 내부마감공사를 다그친데 이어 체육기자재와 설비들의 설치도 제때에 따라세웠다.

군안의 여러 단위들과 인민들도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새로 일떠선 체육관으로는 군내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있다.

나라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관계도 있고 호상 견제하고 배제하는 관계도 있다.

그런가하면 강권과 굴종으로 맺어지는 예속관계와 지배와 사대로 이루어지는 추종관계도 있다. 현존국제관계는 이처럼 복잡하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련합세력들은 지배주의정책을 추구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이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국가들사이의 공정한 국제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수호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떠난 국제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지배와 예속, 강권과 굴욕의 불평등만을 낳는다.

나라들사이에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서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시하는 나라와 지시받는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다.

작은 나라일수록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직해야 한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힘의 우위에 의한 지배주의적경향이 여느때없이 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갖은 전횡을 다 부려도 큰 나라는 심판석에 앉고 작은 나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피고석에 나서야 한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국제관계이다.

강권과 압력에 굴복하여 큰 나라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 한다면 기필코 비굴하고 치욕스러운 운명을 면할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적립장을 가지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혁명적인 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자체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혁명투쟁에서는 마땅히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밀고나가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자주적립장을 지킬 때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끝까지 완수하여나가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게 된다.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하고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자립을 이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특히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원조》와 《협력》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경제적침투를 통한 간섭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위적인 국방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위할수 없다. 자위적인 국방력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로 된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회유와 강박이 먹어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총대가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례외없이 군사적침공을 감행한다.

력사에는 힘이 약한탓에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한 나라들의 비극적운명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그 누구의 도움으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다.

그 어떤 강적과도 당당히 맞설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면 제국주의자들은 절대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강자앞에서는 꼬리를 사리고 약자앞에서는 더욱 횡포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심리이고 기질이다.

미제와의 전면대결에서 우리 공화국이 떨쳐온 승리의 전통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전쟁위협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나라의 존엄을 수호하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왔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은 단결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저들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지어는 침략전쟁까지도 서슴없이 일으키고있는 현실은 반제자주력량의 단합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단합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제국주의자들에게 각개격파당하게 되며 국제무대에서 부정의가 득세하게 된다. 모든 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다면 제국주의자들을 짓부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현시기 국제관계의 기본흐름은 자주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적으로 책동하여도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해나갈 때 공정하고 원칙적인 국제관계는 반드시 수립되게 될것이다.

리 철 혁

여러 나라에서 보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텔레비죤방송이 2일 기념보도를 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있는 구호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또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당이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것은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에 기초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일관시켜왔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무상치료, 무료교육과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으며 국가가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계시여 로동당이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울수 있게 된것이다.

신문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일화들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캄보쟈신문 《인민》은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고있다.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는 **김정은**제1비서이시다.

인민사랑은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이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있으며 인민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그이의 정치철학이며 생의 좌우명이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것을 당부하신다. 이것은 그이께서 자신앞에 내세우시는 요구이기도 하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제1비서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다.

김정은제1비서를 모시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백승떨칠것이다.

기네국가TV방송은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을 방영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로동당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에는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였으며 조선은 짧은 기간에 자주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각하를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로씨야, 몽골에서 진행

김정일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7일 로씨야 나호드까시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인양 만발한 위인칭송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나호드까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나호드까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화는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꽃이다.

또한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조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로씨야를 방문하시였다.

연해변강인민들은 그이와 **김정일**화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나호드까시의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호드까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이 활짝 피여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김정일화는 절세위인의 강인담대한 의지와 고매한 풍모, 불같은 열정을 상징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볼 때 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꽃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밖에 없다.

앞으로 로조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의》 나호드까시지부 위원장은 **김정일**화는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꽃이다, 불멸의 꽃을 보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의 행복과 로조친선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돌이켜보았다, 그이의 업적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고 말하였다.

* *

김정일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7일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10월 10일 경축》,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이라는 글발을 배경으로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몽골 공업 및 농업성,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대외관계성, 민족민주당, **김정일**화협회, 적십자련맹 등 정부,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몽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수공예품전람회에 이어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는것은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은동지를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몽골인민은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몽골땅에 만발한 **김정일**화와 더불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김정일**화의 아름다움에 매혹을 금치 못하면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에 즈음한 우리 나라 사진, 도서, 수공예품전람회가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 몽골, 메히꼬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알렉싼드로브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조선로동당을 세상에 없는 전투적인 당, 인민을 위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조선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될것은 명백하다.

몽골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은 10월의 뜻깊은 계기들에 즈음하여 조선전람회가 성대히 개막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승리적전진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몽골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과의 친선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메히꼬 인쓰르헨떼종합쎈터 위원장은 우리 당이 백승만을 떨쳐온데 대하여 격찬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앞으로도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사진, 도서, 수공예품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개막

녀성들을 보호할것을 호소

칠레대통령 미첼레 바첼레뜨가 9일 한 지역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사회적으로 녀성들을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녀성들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녀성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서방렬강들의 책동 규탄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이 최근 서방렬강들의 불순한 기도를 폭로규탄하는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는 서방렬강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지역에서 수리아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중동의 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원 특히 원유를 강탈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콤뮤니케는 아랍사회부흥당은 극단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대륙에 경종을 울려주는 자금류출

얼마전 유럽과 아프리카의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의 금융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비법적인 자금류출과 천연자원의 비법적리용, 다국적회사들의 자금횡령 등으로 하여 해마다 580억US$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작성자들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자기 회사들에 아프리카대륙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도록 부추기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자금대부의 형태로 제공되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이 나라들에서 채무위기를 초래하고있다.》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있는가를 랭정하게 돌이켜보게 하는 사실이다.

최근년간 서방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의 리권을 탐내면서 저저마다 《원조》와 《협력》의 간판을 내들고 대륙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미국을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지난해 6월말부터 7월초사이에 아프리카행각에 나섰던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행적을 보자.

그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무역확대와 동반자관계를 원하고있다느니, 이 지역의 경제장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느니 뭐니 하고 수선을 떨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아프리카의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70억US$를 투자하는 《계획》이라는것까지 발표하였다.

올해 8월에는 워싱톤에서 미국—아프리카수뇌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미국은 아프리카대륙과의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300여억US$를 투자하겠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추동한다는 미명하에 대륙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대통령자문리사회라는것까지 내왔다.

미당국자들은 미국—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저들의 영향력을 되찾고 대륙에서 확대되는 다른 대국들의 세력권을 막으려는 기도를 숨기지 않았다.

아프리카나라들의 환심을 삼으로써 하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가려는 나라는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부유하다는 나라들이 너나없이 아프리카에 돈주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리권을 독차지하고 정치적영향력까지 행사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자금류출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아프리카는 해마다 평균 220억US$의 손실을 보았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손실규모는 해마다 500억US$에 이르렀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에서 비법적방법으로 류출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원유, 귀금속, 동생산과 같은 분야들에서 류통되던것들이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 비법적으로 빨아들인 자금의 많은 몫이 미국을 비롯한 일명 《투자국》들의 돈주머니로 흘러들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97년에 발생한 동남아시아금융위기와 같은 악몽이 아프리카에서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990년대 동남아시아의 발전도상나라들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이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그후 방대한 규모의 자금류출이 시작되면서 채무위기가 증대되고 민족화폐시세가 폭락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악몽과도 같은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되였다.

물론 아프리카의 경제형편은 동남아시아와는 다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세의 금융침투와 리권획득방식은 같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실은 아프리카나라뿐이 아닌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외국자본을 대하며 생산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일부 나라들이 그 아무리 《원조》요, 《협력》이요 하면서 돈주머니를 흔들어도 그것은 진정으로 아프리카대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철저히 예속시켜 이 대륙의 자원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키고 지배권을 공고히 하자는것이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서방의 《원조》에 각성을 높이고있는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본사기자

에볼라비루스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비루스가 세계적범위로 전파되고있다.

기네에서 에볼라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때로부터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모두 122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에라레온에서도 에볼라비루스가 확대되고있는 속에서 얼마전에는 하루동안에 120여명이 죽고 수십명이 감염되였다고 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10월초현재 기네, 리베리아, 나이제리아 등 지역나라들에서 근 7 480명의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근 3 4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비루스는 지금 서아프리카지역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급격히 전파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 에스빠냐, 인디아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자들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있다.

에볼라비루스는 일종의 출혈성열병을 일으키는 비루스인데 1976년 민주꽁고의 에볼라강부근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시 아프리카의 중부와 동부지역 나라들에 퍼져 많은 생명을 앗아간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비루스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병이래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여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기록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 원인은 발병지역이 그전에는 주민이 적은 산간지대였다면 지금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라는데 있다.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면 대체로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그후 구토와 설사, 출혈을 하면서 사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심한 머리아픔과 고열, 근육동통이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신체장기들에서 응고된 혈액덩어리가 생기고 전신동통, 구토, 설사가 지속되며 3단계에서는 면역계통과 모세혈관이 전면파괴되여 눈, 코, 입, 귀를 통해 출혈하며 발병후 8~17일사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이 비루스에 의한 사망률은 90%에 달하고있다.

세계 여론들이 에볼라에 의한 피해지역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태의 엄중성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제일 많은 기네,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등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에볼라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대중보도수단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적으로 에볼라전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그를 막기 위한 위생선전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동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에볼라비루스가 발생하면 즉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비루스전파방지를 위한 공동전략을 작성하고있다.

아프리카동맹은 대륙의 보건체계들을 개선하며 아프리카질병통제 및 예방쎈터운영준비사업을 추진시켜 효과적인 대응조치와 국제적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에볼라비루스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나미비아, 가나, 모리따니대통령들은 유엔총회에서 에볼라는 리베리아, 시에라레온을 비롯한 서아프리카나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에볼라비루스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비루스 및 전염병연구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꾸바가 서아프리카에 300명의 의료진을 추가로 파견할것이라고 밝혔고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있다.

보건부문에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시험단계의 에볼라비루스치료제는 즉시 활용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에볼라치료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두 종류의 약찐에 대한 안전성실험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가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였다.

최근 프랑스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개발한 약을 써서 에볼라비루스감염환자를 치료하여 회복시켰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국령토에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를 치료할수 있는 효과적인 약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무서운 피해를 주며 급격히 전파되고있는 죽음의 병과 맞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 철 룡

로씨야인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 고조

로씨야인들속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있다.

9월말에 진행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3%가 미국이 로씨야의 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한편 대로씨야제재를 실시하고있는 미국에 동조해나선 유럽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있는 로씨야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한다.

나치즘부활시도를 배격

라뜨비야외무상이 10일 나치즘부활시도를 반대하는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유태인학살만행에 직접 가담한 나치스전범자를 찬양하는 음악회를 열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어리석은짓으로 락인하였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지지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이웃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해나갈 립장 표명

이란외무성 부상이 7일 한 회의에서 주변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꾸바의 수도 아바나

그는 이란은 높은 방위, 군사, 안보능력을 갖추고있다고 하면서 인신매매와 싸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이웃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약 압수

따쥐끼스딴의 두샨베에서 최근 반마약작전이 진행되였다.

작전과정에 1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고 약 20kg의 헤로인이 압수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첫 8개월동안에 이 나라의 법보호기관들은 전국적으로 4t이상의 각종 마약을 몰수하였다 한다.

10일 이 나라 내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4116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